

# 사전과 신어

##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

이유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학예연구사

### 1. 서론

사전은 평소 우리가 쓰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많은 어휘를 담고 있다. 사전을 뒤적거리다 보면 정말 평생 가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어휘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말도 한 단어로 있어?’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대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으며, 사전은 얼마나 많은 단어를 담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말이 사전에 실려 있지는 않다는 점이 또한 재미있다. 말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 만들어지며 사라진다. 사전은 이러한 말의 역사와 모습을 기록하는 매체이다. 사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전은 기본적으로 ‘사전(辭典)’이라는 말 그대로 ‘말의 책’이라는 뜻에 걸맞게 끊임없이 말을 모아 담는 매체이다. 말을 풍부하게 모으고 담아내는 사전 고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전은 새로 나온 말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일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전과 신어의 관계를 국립국어원의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과 함께 《우리말샘》에 신어가 실리는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말샘》이 신어를 포함하여 표제어를 추가하고 사전 정보를 보완해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2. 사전과 신어 조사

사전에 새로 생긴 말을 담는 일은 사전을 만들고 보완함에 있어 기본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기존 사전들을 살펴보면 사전이 신어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만 하더라도 1999년 처음 종이 사전으로 출간된 이후 2002년 웹 사전 형식을 개통할 때까지 내용상의 큰 차이가 없었다. 2002년 개통한 웹 사전은 종이 사전을 온라인으로 옮겼을 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50만 어휘 규모의 종합 대사전을 만들 당시 기존 사전들이 담지 못했던 미등재어나 그간 새로 생긴 말을 등재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한번 발간된 이후 새로 생긴 말을 꾸준히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사전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만, 2008년에 《표준국어대사전》 웹 사전 개정판을 개통할 때에는 새로운 표제어를 다소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어라기보다는, 사전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사전 미등재어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은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어의 개념이나 조사 목적, 조사 대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혜원(2018)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

단계	연도	기간	대상	방법	매체
1기	1994	1994. 6~1994. 10.	미등재어	수작업	신문·잡지 8종
	1995	1994. 10.~1995. 10.			현대시 10,886편
	1996	1998~1994			
	2000	2000. 4.~2000. 10.			
	2001	2001. 3.~2001. 9.			신문 9종
2기	2002	2002. 2.~2002. 8.	신어/미등재어	수작업	신문·방송(뉴스) 4·5종, 중앙 일간지, 인터넷 포털
	2003	2003. 2.~2003. 9.			
	2004	2004. 2.~2004. 9.			
3기	2005	2005. 1.~2005. 11.	신어/미등재어	말뭉치 구축	신문·방송 40종
	2006	2006. 1.~2006. 11.			신문·방송 27종
	2008	2008. 1.~2008. 12.			
	2009	2009. 1.~2009. 12.			
	2010	2010. 1.~2010. 6.			신문·방송 55종
4기	2012	2011. 7.~2012. 6.	신어/미등재어	웹 기반 신어 추출기	신문·방송 139종(네이버 뉴스 제공)
	2013	2012. 7.~2013. 6.			
	2014	2013. 7.~2014. 6.			
	2015	2014. 7.~2015. 6.			
	2016	2015. 7.~2016. 6.			
	2017	2016. 7.~2017. 6.			
	2018	2017. 7.~2018. 6.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전 편찬이나 사전 보완 작업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특정 신문이나 잡지, 현대시 작품을 대상으로 수작업을 통해 미등재어를 조사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2기부터는 신어와 미등재어를 함께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기까지는 아직 비교적 많지 않은 수의 언론 매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던 신어 조사였지만, 3기부터는 그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수가 계속해서 확대되었으며, 말뭉치 구축을 통해 신어 추출이 진행되

었다. 4기에 들어서는 《우리말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포함된 웹 기반 신어 추출기를 바탕으로 신어를 추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우리말샘》의 웹 기반 신어 추출기는 계속해서 그 기능을 보완해 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이 점차 그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에 있어 보완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명이나 새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로 최근에 만들어진,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개념의 새로 나타난 말을 조사한 결과가 신어 조사 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신어 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완된 셈이다.

그러나 사전과 신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신어 조사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전의 미등재어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지 않다. 물론 신어와 미등재어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조사 목적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점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전의 표제어 등재는 출현 시점과 조사 시점이 일치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말을 신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전의 표제어 추가가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새롭게 등장한 그 어휘가 과연 사전에 실릴 수 있을 만큼 생명력을 가지고 언중들에게 인정받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사전의 표제어 등재 기준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언중들에 의해 널리 쓰이는 말’이라는 기준은 대부분의 사전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길임(2015)에서, 신어가 연도별 신어 자료집에 등재되어 특정 시대를 반영하는 기록물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과 별도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빈도 이상 사용되어 일상화된 신어를 사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빈도 및 분포를 중심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명이나 새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로 최근에 만들어진,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개념의 새로 나타난 말은 신어 조사 사업에서 조사가 되었다고 해도 바로 사전 등재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종합 대사전이면서도 규범 사전의 성격 역시 가지고 있어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다시 말해 일정 빈도 이상 쓰임이 보여 언어생활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주로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신어는 그 특성상 특정 기간 내에 두드러지게 쓰이다가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임시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국립국어원의 사전을 포함한 기존 사전에서는 신어의 등재 수나 구성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셈이었다.

### 3. 《우리말샘》의 신어

#### 3.1. 《우리말샘》의 등장과 신어

기존 사전의 신어 반영 양상이 앞장에서 다룬 내용과 같았다면, 2016년 10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이 개통된 이후로는 사전에서의 신어 반영 양상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을 바탕으로 기획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한국어 기반의 콘텐츠를 확장하여 마련하며, 국민이 사전 편찬에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어 중심의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의 사전은 국어학자나 사전 편찬자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위주가 되어 사전 표제어를 선정하고 사전 내용을 편찬하는 제한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한번 발간된 사전을 수정·증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없다는 제한이 많았다. 그러나 사전 편찬의 환경이 종이 사전에서 웹 사전으로 바뀌어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이 개통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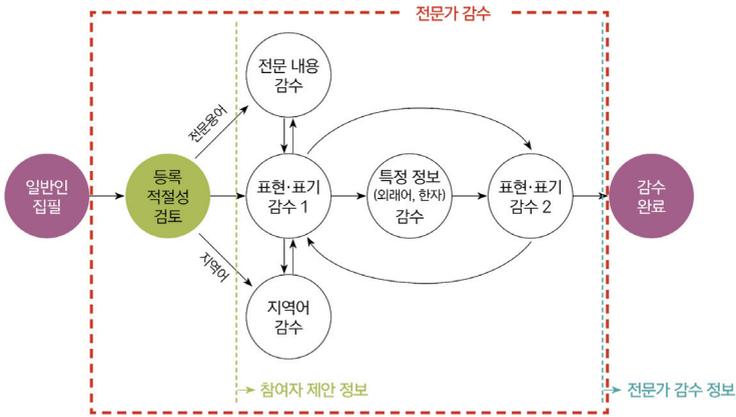
라 제한된 전문가만 참여하는 형태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실제 언어 현상과의 시차를 대폭 줄여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말샘》의 많은 정보는 자유 저작권 정책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전면 개방, 제공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자료로 사용하거나 특화된 사전,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2차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다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사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많은 이용자들은 활발한 참여를 통해 《우리말샘》에 새로운 말을 올리고 있다. 2016년 10월 5일 개통 이후 《우리말샘》의 일반인 집필 참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개통 3년 차인 2018년에는 일반인 참여가 이전 해에 비하여 급증하여 국민들의 언어 지식 제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통 이후 《우리말샘》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사전 반영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말샘》 연도별 일반인 참여 및 반영 건수			
	2016년(10월 개통 이후)	2017년	2018년
일반인 등록 제안	3,006건	7,467건	36,162건
전문가 감수 후 사전 반영	1,644건	2,208건	8,232건

위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샘》에 새로운 표제어가 등재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말샘》의 특징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인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참여의 개방성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참여로 확장·갱신된 정보를 전문가가 감수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데에 있다. 전문가가 다방면에 걸쳐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되어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우리말샘》에 새로운 표제어가 등재되어 사전 내용을 반영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일반인 참여 정보: 표제어, 품사, 원어, 발음, 범주, 방언 지역, 뜻풀이, 전문 분야, 학명, 대역어, 용례, 다중 매체 자료 등 12개 항목

위의 표와 그림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자. 2018년에는 일반인이 집필하여 등록을 제한한 내용이 모두 36,162건으로,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이 사전 집필에 직접 참여할 때에 최대치로 집필할 수 있는 사전 항목은 위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총 12개 항목이다. 이렇게 일반인이 등록하여 제안한 집필 내용은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 단계로는 표제어를 일반어, 전문 용어, 지역어로 나누어 각각의 경로에 맞게 전문가 감수를 거친다. 기본적으로는 국어학·사전학 영역에 대한 검토인 표현·표기 검토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검토하는 특정 정보 감수로 나뉜다. 이와 같은 감수 과정을 거친 일반인 등록 제한 내용은 '전문가 감수 정보'라는 분류로 이용자들에게 공개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전에 반영된 것이 모두 8,232건이었다.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등록된 내용 중에는, 기존 사전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신어도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우리말샘》의 탄생 배경과 목적을 밝힌 것을 다시 떠올려 보면, ‘신어’야말로 《우리말샘》이 기존 사전과 다르게 내세울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말샘》에 올라온 신어의 실제 예시를 들어 살펴보려고 한다.

### 3.2. 《우리말샘》 속의 신어

《우리말샘》에 올라오는 많은 새로운 정보 중에 이 글에서 눈여겨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미등재어보다는 신어 쪽에 가깝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누어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개념의 새로 나타난 말에 가까운 예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말샘》에 신어가 유입되는 경로는 대부분 일반 이용자가 등록 요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앞에서 말한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도 일부 포함된다. 일반 이용자가 등록한 신어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말샘》의 표제어 등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우리말샘》의 전문가 감수 정보로 최종 반영된다. 신어 조사 결과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사 결과물이 우선 《우리말샘》 표제어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살펴본 후, 표현·표기 감수 과정을 거친다. 신어 조사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사전 미시 구조 형식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올린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표현·표기 감수가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신어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신어의 유형을 나누고 있듯이, 《우리말샘》에 오르는 신어의 유형도 비슷하다. 해당 시기에 새로 생겨난 대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것, 시대적인 쟁점을 담고 있는 것, 특정 집단에서 은어나 유행어

처럼 쓰이던 것이 이용자층이 확대되어 널리 퍼진 것 등 다양하다. 형태적 신어뿐만 아니라, 의미적 신어나 문법적 신어 등도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신어의 정의나 유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에 기대기로 하고, 《우리말샘》에 최근 실린 신어의 실재를 살펴보는 것으로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 이제 《우리말샘》에 반영된 신어의 예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 (1) 가. 길 과장

: 출근이나 출장 등으로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과장 직위의 사람을 이르는 말.

¶ 서울 출장을 줄이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세종시에는 길 과장으로 불리는 이들이 아직도 수도룩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10월>

#### 나. 헬조선

: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조선’을 결합하여 만든 말로,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 자기 세대의 특징을 ‘포기’로 표현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한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경향신문 2015년 10월>

#### 다. 휘게 라이프

: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사는 생활.

¶ 일상의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북유럽 생활 양식 ‘휘게 라이프’가 뜨고 있다. <내외경제티브이 2019년 2월>

(1)의 예는 시대적 변화나 상황 혹은 시대적 이슈를 담고 있는 신어라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 세종 청사로의 중앙 부처 및 소속 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면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났다. 특히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들의 출장이 많았는데, 이를 빗대어 ‘길 과장’, ‘길 국장’과 같은 말이 새롭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생기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

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어인 셈이다. (1가)와 (1나)는 좀 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헬조선’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젊은 이들 사이에 널리 퍼진,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신어 중 하나이다. 반면 ‘취계 라이프’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점차 너무나 바쁘고 각박하게 돌아가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지양하여 그것을 벗어나 좀 더 일상과 개인의 여유를 추구하자는 분위기에서 퍼진 생활 양식이다. 북유럽의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 새롭게 생긴 말이 되었다. 우리 사회와 시대의 변화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 주는 신어라 할 수 있다. 말이 만들어지고 퍼지게 된 생성 시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신어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2) 가. 레어템

: 희귀한 물품. 온라인 게임에서 귀하고 좋은 아이템을 지칭하는 것에서 비롯한 말로, ‘레어 아이템’을 줄인 말.

¶ 빈티지 신발, 빈티지 가방 등 의류에서 액세서리까지 빈티지 패션을 주도하는 다양한 레어템을 판매하고 있다. <<굿데이스포츠 2011년 1월>>

## 나. 인생템

: 평생 쓰고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물건을 이르는 말.

¶ 온라인상에서 일명 ‘인생템’으로 불리며 많은 여성에게 사랑받는 화제의 제품이다. <<헤럴드경제 2015년 11월>>

## 다. 애정템

: 애정을 가지고 몹시 아끼는 물건을 이르는 말.

¶ 개인 ○○에 평소 사용하는 제품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린 그는 ‘오늘도 내 피부를 책임져 주는 애정템’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5년 10월>>

## 라. 아재템

: 중년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물건을 이르는 말.

¶ 이공삼공 세대에서 아저씨들만의 제품이었던 ‘아재템’이 인기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실용적 멋을 추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일보 2017년 2월>>

(2)는 특정 집단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 널리 퍼지면서 다른 말과 다양하게 결합하여 많은 파생어를 만들어 낸 경우라 할 수 있다. (2가)의 뜻풀이에서 볼 수 있듯이, 원래 ‘○○템’이란 말은 ‘○○+아이템(item)’과 같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었다. 이것이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언어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면서 인생템, 애정템, 아재템과 같이 수많은 ‘○○템’이라는 것을 파생시켰다. <<우리말샘>>에는 일반 이용자에 의해 ‘템’ 자체가 “아이템’의 준말로,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을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와 함께 하나의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규범 사전을 지향하던 <<표준국어대사전>>이나 여타의 기존 사전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말샘>>만의 개방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가. 남사친

: ‘남자 사람 친구’를 줄여 이르는 말.

¶ 내 이성 친구가 힘들 때 가장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남사친의 경우 정서적 교류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된다는 평가다. <<매일경제 2016년 10월>>

### 나. 세젤예

: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를 줄여 이르는 말.

¶ 배우 ○○○의 세젤예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스포츠조선 2016년 9월>>

### 다. 내로남불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 유명 브랜드 제품을 बे끼는 업체들이 자사 특허 침해엔 민감한 반응을 보여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은 신어가 만들어짐에 있어 가장 흔히 보이는 유형인 줄임말의 경우이다. (3가)와 같이 ‘남자 사람 친구’라는 새로운 명명을 줄여 말하는 경우이다. ‘남자 사람 친구’의 경우 기존의 ‘남자 친구’가 단순히 성별이 남자인 친구가 아닌 ‘연인 관계에 있는 남성 친구’라는 것으로 한정되어 쓰이자, 차이점을 강조하고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현상과 관련이 있다. 《우리말샘》에는 ‘남자 사람 친구’가 ‘연인 관계가 아닌 남성 친구’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실제 언어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을 담겠다는 《우리말샘》의 기존 취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남자 사람 친구’라는 말을 줄여 쓰는 ‘남사친’뿐만 아니라, 더 긴 표현을 한 단어로 줄여 쓰고 싶어 하는 언중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 주는 ‘세젤 예’나 ‘내로남불’과 같은 것도 줄임말 형태의 신어이다. 이러한 형태의 신어는 이외에도 다수이며 앞으로도 《우리말샘》에 많이 오르게 될 것이다.

#### (4) 가. 멍멍이

: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멍멍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 ‘멍멍이’를 ‘멍멍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컴퓨터 모니터로 볼 때 ‘댕’자와 ‘멍’자가 잘 구별되지 않은 착시 효과를 재치 있게 활용한 것이다.《아시아경제 2016년 1월》

#### 나. 멍작

: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멍작’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글자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적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 ‘○○○’은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소신 있게 사건을 파헤치는 배우 ○○○에게 매료돼 단숨에 시청자들의 ‘멍작’으로 떠올랐다.《인사이트 2017년 11월》

다. 멍곡(멍곡), 멍언(멍언), 머가리(대가리), 머박(대박), 커엽다(귀엽다)……

기존 사전이라면 거의 높은 확률로 담지 못했을 법하지만 《우리말샘》에

는 실려 있는 신어 유형이 바로 (4)이다. 《우리말샘》 뜻풀이에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4)는 얼마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야민정음’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신어이다.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유형은 단어의 뜻과는 무관하게 글자 모양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어라는 점에서 기존 신어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언중들이 이러한 유형의 신어를 재미있게 느끼고 두루 쓰고 있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쓰여 안정적인 생명력을 갖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앞의 다른 유형들 중에서도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의 격차가 가장 짧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마 기존 사전의 관점에서 (4)와 같은 유형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어휘의 생명 주기를 살펴보면 완전히 언중의 생활에서 자리 잡혀 쓰이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점에서야 사전 등재 후보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말샘》은 기본적으로 사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는 자료 보관소(아카이브)이자 모든 언어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제공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기반을 두어 봤을 때, (4)와 같은 유형은 기존 사전에서는 담지 않았던 정보를 포함한 《우리말샘》만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지점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샘》은 사전으로서의 기능과 언어 자료 보관소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말샘》 내 콘텐츠와 시스템 구조를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 4. 결론

신어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물을 누적하여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사전의 보완 및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살아 있는 언어를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이야말로 사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샘》이 개통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신어가 사전에 등재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말샘》 개통 초기이므로 일반인 이용자에 의해 추가되는 표제어 중 많은 수는 진정한 의미의 신어라기보다는 미등재어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수의 미등재어가 채워지고 진정한 의미의 신어가 등록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말샘》은 사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는 자료 보관소로서의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우리말샘》뿐만 아니라 모든 사전이 각각의 용도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샘》은 기존 사전에서 임시어의 성격이 강한 신어를 실을 수 없었던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기록해 나가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신어 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말샘》 시스템 내의 웹 기반 신어 추출기의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 신어 추출 및 신어 생명 주기 분석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와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말샘》은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말을 흡수하여 실생활어 중심의 살아 있는 한국 언어문화 정보의 집합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남길임(2015), “신어의 사용 추이와 사전 등재의 기준”, 《한글 310》, 한글학회, 205~233쪽.
- 박광길·최윤(2017), “우리말샘(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활용한 신어 연구”, 《인문과학 연구 5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43~266쪽.
- 최혜원(2018), “사회 변동에 따른 어휘 변화 - 국립국어원 신어 사업을 중심으로 -”,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37~50쪽.